



1992. 6. 4. 부산삼일교회. 중고등부 교사강습회 교안 원고.

개혁과 교회의 청소년 교회교육

변 중 길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신학박사)

개혁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모든 삶을 개혁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화란 개혁과 교회에서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성도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청소년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개혁과 교회의 청소년 신앙 교육도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관의 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서로 일치가 되어서 꾸준하면서도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개혁과 교회의 청소년 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개혁과 교회의 가정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엄격한 신앙 훈련을 실시한다. 부모와 자녀의 모든 삶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며 그들의 신앙은 행함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말씀에 따른 성도의 윤리가 강조되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리고 항상 단정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훈련받는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건 생활의 중심은 식사 시간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끼 이상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식사 후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성경을 한 부분 읽고 짧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친다. 이처럼 개혁과 성도의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이 단지 음식만 먹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주고 받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시간이고 또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과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매우 높아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행동을 삼갈 뿐 아니라 신앙, 신학 서적 독서를 꾸준히 하며 간단한 주석들을 가까이 두고서 늘 참조하며 자녀들의 질문에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개혁과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으며 신학 지식이 상당히 깊은데, 때로는 우리 나라의 신학생, 교역자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두운 면도 나타나게 된다. 때로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나 부모의 율법적 권위에 반발하고 따로 방을 얻어 나가게 되면, 부모의 권위로부터 해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로부터도 해방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엄격한 개혁과 가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는 심히 자유롭고 방탕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다 좀더 일반적인 문제로서는 개혁과 가정의 청소년은 주로 성경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며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능동적인 경건은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으로서 속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2.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

개혁과 교회의 청소년 교육은 학교에서도 이어진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무리 신앙 교육을 잘 시켜보아 학교에서 세속적인 불신 사상을 배우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란 개혁과 성도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신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사립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이들 학교에 대해 정부에서 다른 공립학교와 똑같은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하였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200명 전후의 조그만 국민학교들이 각 동네마다 각 교회, 교단의 신앙에 따라 여기 저기 서 있으며, 대개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 학교는 좀 규모가 큰데, 한 교단에서 독자적으로 몇 도시에 세워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몇 개 보수 교단이 힘을 모아서 군데 군데 설립,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중.고등 학교에서의 교육은 중요한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유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 요즘 화란의 청소년들은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 대화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일이 무수히 많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개혁과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녀를 중.고등 학교에 보낼 때 고심하게 되는데 한 두 시간 기차를 타더라도 좋은 개혁 중.고등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개혁과 중.고등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목 외에 주로 기독교 교리와 성경, 교회사 등을 가르치며 시험을 치르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은 좋은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며, 종교 교육 시간이 딱딱한 지적 지식 전달의 시간으로 되고 있어 신앙적 감화가 별로 없다고 하는 점이 문제이다. 교리와 윤리 문제는 잘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심어주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3.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

개혁과 교회는 옛부터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주일 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주일 오전과 오후(또는 저녁)예배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며, 동일한 언약의 자손으로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며 또 헌금하는 권리와 의무를 배운다.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주 중에 한 시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으로부터 「교리 학습」을 받는데 대단히 강도 높은 교리 교육이 약 6-7년간 계속 실시된다. 이 과정을 무사히 이수하고 통과해야만 교회의 공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어서 곧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과 교회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 외에 교회에서 매주 한 시간씩 교리 교육을 받는 강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교회에서의 교리 학습에는 주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교리적 문제와 의문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내용이 성경 자체보다도 교리에 편중되어서 딱딱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요즈음 자유화된 개혁과 교단에서는 젊은이들이 교리 학습에 잘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리 학습과 주일 예배 두번을 제외하고 나면 개혁 교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중고등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 예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전담 교역자도 따로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청년회 등을 따로 만들어서 완전히 자치적으로 가끔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도 하기 학교나 수양회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없다. 단지 최근에는 교단적으로 또는 개교회적으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시도하는 소그룹이 조금씩 생겨나서 여름에 활동하고 있다. 아직 큰 규모는 아니고 청소년들의 참여도 저조한 편이나 나름대로 전도해야겠다는 각성이 젊은이들 사이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화란 개혁 교회는 중요한 전환기에 (이미)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몇년 사이에 「후기 기독교 시대」나 「하나님의 어두워짐 현상」이니 또는 「교회 이탈」이니 하는 말이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 심화되고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개혁 교회 청소년들의 신앙과 생활 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쉽사리 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저주와 욕이 튀어나오고, 조용하고 경건한 고전 음악 대신에 시끄러운 팝송을 들으며, 부모 집을 뛰쳐 나가 젊은이들끼리 동거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이 많다. 교회에서는 이런 청소년 문제를 거론은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혁 교회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실제적 삶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배운 것은 교리요 지식이요 외적 신앙 형태이지 하나님 신앙의 삶은 아니었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된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 이것도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 교사는 또한 그들 마음 속에 참된 신앙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간구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청소년 각자 각자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라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학생들 개개인이 기도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엄격한 생활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녀들에게 각자가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도록 하는 훈련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이 청소년 신앙 교육에서 어떤 점에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